



불꽃 수놓은 ‘챔피언스 필드’ 지난 18일 2014 올스타전에 참가한 프로야구 ‘별들의 별’이 경기가 끝난 뒤 챔피언스필드 하늘을 물들인 불꽃놀이를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지완, 홈런에 울고 웃고

올스타전 홈런레이스 굴욕의 ‘0’…본경기서 3점포 작렬 ‘우수타자상’

“창피하다. 모여라!”는 이대형의 말에 KIA 올스타 선수들이 우르르 덕아웃으로 들어왔다.

조금 뒤 나지완이 민망한 표정으로 땀을 흘리며 죄인처럼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랐다. 요란스럽게 KIA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떠난 뒤 덕아웃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들썩였다. ‘홈런’이 문제였다.

나지완은 1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올스타전 홈런레이스에 출전했다. 팀을 대표하는 4번 타자답게 시원한 한 방이 터지기를 기대했지만 7아웃이 될 때까지 공은 외야 담장을 넘지 못했다. 나지완의 기록은 ‘0’. 히메네스(롯데)와 공동 꼴찌였다.

빛속에서 나지완을 응원했던 이대형·안지홍·양현종·어센시오는 ‘창피하다’고 웃으며 덕아웃으로 걸음을 옮겼다. 특타에 잘나가는 김주찬의 바지까지 빌려 입고 나왔던 나지완은, 동료에 둘러싸여 라커룸으로 연행(?) 됐다. 죄인이 됐던 나지완이지만 올스타전이 끝난 뒤에는 입

지가 달라졌다.

자리를 갈아엎을 때는 치지 못하던 홈런이 본경기에서 터졌다. 강정호가 2회 투런포를 날리며 반전을 예고했다. 모창민(NC)과 박병호(세진)까지 손맛을 보면서 서군이 9-0으로 크게 앞선 5회, 앞서 중전안타를 기록했던 나지완이 이번에는 SK 박정배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좌중간을 넘기며 3점포를 만들었다. 이번만이 아니었다. 7회에는 우측으로 공을 날려 2루까지 내달렸고, 9회에도 임창용을 상대로 중전 안타를 때리며 5타수4안타3타점의 맹활약을 했다.

홈런에 울다가 홈런에 웃은 나지완. 또 다른 홈런에 다시 나지완이 울상이 됐다. 8회초 2사까지는 나지완의 MVP가 유력했다. 그러나 3타수2안타(1홈런)의 박병호가 서군의 13-2 승리를 자축하는 솔로포를 날리며 MVP를 뺏아낸 것이다.

우수타자상에 만족해야 했던 나지완은 “박병호가 짜증

난다”고 소감을 밝히 덕아웃을 웃음소리로 들썩이게 했다. 나지완은 “홈런 레이스에서 하나도 못 쳐서 창피했다. 내일 훈련하면서 형들에게 어떤 욕을 먹을까 걱정했다. 감독님도 너무했다고 하셨다. (박)병호가 홈런 치는 순간 MVP 날아갔다고 생각했다. 나는 3루타를 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타석에서 우중간을 노렸는데 임창용 선배가 전력으로 투구를 하셨다”고 웃었다.

또 “타격감이 너무 떨어져서 힘들었는데 올스타전을 하면서 감이 살아났다. 후반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몇 년 만에 서군이 이겼다고 하는데 이런 라인업에서 경기를 했다는 자체로도 큰 영광이다”고 말했다.

나지완은 “그래도 박병호가 짜증난다”는 말과 함께 상금 300만원을 챙겨들고 라커룸으로 향했다.

한편 이날 서군 선발로 출격한 양현종도 2이닝 1볼넷 2탈삼진의 호투로 안방에서 우수투수상을 받았다. 번트왕 최하위에 머문 이대형은 멋진 다이빙 캐치로 이를 만회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생애 최고의 순간”

박찬호, 후배들이 자리마련 ‘공식 은퇴식’

“꿈같은 일이 실현됐다.”

동양인 메이저리거 최다승(124승)의 주인공 박찬호가 지난 1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4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은퇴행사를 가졌다. 한국야구를 대표했던 ‘별’이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고하는 작별인사의 무대였다.

공주고 선배인 김경문 NC 감독이 미트를 끼고 시구자로 나선 자랑스러운 후배의 마지막 공을 받으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프로야구의 별들은 대선배를 행가래치며 뜨거운 작별을 고했다.

후배들의 ‘꿈’이었던 박찬호는 후배들이 마련해준 자리가 ‘꿈’이었다. 박찬호는 “내가 올스타전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 들어서 머쓱해지는 데 소중한 날인 것 같다. 영광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했는데 오래전부터 상상하고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이 기회를 주신 분들과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찬호에게는 무거운 책임감이 주어진 시간이기도 했다. 박찬호는 “후배들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후배들이 어떤 일을 해주라는 책임감을 준 것 같다. 류현진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내가 문을 열었다면 현진이는 한국 야구의 수준을 높였다. 고맙고 영광스럽다. 성공한 후배가 없으면 선배의 문은 낡아서 없어진다. 계속해서 후배들이 이어나가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

父子 이순철 해설위원-두산 이성곤 선수



프로야구의 미래로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퓨처스 올스타. 혼자자 아니라 아빠와 아들, 사촌끼리 나란히 올스타 무대를 찾으면서 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낸 이들이 있다.

프로야구 레전드 이순철 SBS 스포츠 해설위원과 두산의 셋백 이성곤(외야수)은 지난 18일 그라운드에서 가족모임을 가졌다. 아버지와 아들인 두 사람은 해설자와 선수로 퓨처스 올스타전에 참가했다.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성곤은 화정초를 거쳐 4학년 때 서울 성동초에서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모교인 연세대에서 뛴 그는 올 시즌 입단한 루키다.

“가족의 이름으로”

이성곤은 “고향에서 열린 올스타전이라 기분이 좋다. 광주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큰 무대에서 뛰겠다”고 밝혔다.

아빠가 아닌 해설자가 된 이순철 해설위원의 평가는 ‘모두가기인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역시 냉정했다.

이 위원은 “프로에 와서 아들 뛰는 것을 오늘 처음 봤다. 한번 2군 경기를 보러갔는데 첫 타석에서 공에 맞고 나오지 않더라. 내야수로 입단했다가 외야로 포지션을 옮긴 것을 두고 공격력 강화 측면이라고 하는데 수비를 못 해서다. 부족한 게 많다. 더 잘해야한다”고 말해 덕아웃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다른 듯 닮은 사촌의 재회도 있었다. 지난해 KIA에 입단한 우완 고영창과 경찰청 선발로 나선 좌완 임기준(KIA)은 두 살 터울의 이종사촌이다. 장남인 임기준이 고영창을 친형처럼 따라다니면서 서림초·진흥중·고를 함께 다녔다. 야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도 ‘형’이다.

임기준은 “형이 야구를 해서 나도 자연스럽게 야구선

사촌 KIA 고영창-경찰청 임기준 선수



수가 됐다. 고등학교 1·2학년 야구가 안됐을 때 형을 원망하기도 했다. 동생이 있으면 기합을 받거나 할 때 슬쩍 봐주기도 하는데 형은 오히려 더 힘들게 했다”고 웃었다.

프로 경력은 동생 임기준이 5년차로 더 많지만 고영창에게는 여전히 어린 동생.

“아직도 철이 없다. 많이 혼내서 이만큼 컸다. 더 정신 차리게 혼내야겠다”고 농담을 한 고영창은 “공을 잘 던진다. 던지는 법을 아는 좋은 투수이자 동생이다”고 말했다.

두 달 뒤 임기준이 제대하면 형과 동생은 다시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